

한국 청소년들의 부정직 행위 유형 분석

문 용 린¹⁾

장 희 선²⁾

류 정 현³⁾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직 행위를 학교급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부정직 행위에 대한 한국 청소년의 발달적 측면과 성차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22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부정직 행위를 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골라 시기, 상황, 대상, 목적, 결과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중 부정직 행위의 개념에 적합한 181명의 설문자료를 대상으로 부정직 행위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포괄하여 연구자가 재개발한 분석체계를 토대로 개인의 이익 추구 방향에 따른 '지향'과 '회피'의 2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이를 다시 부정직 행위의 유형별로 '생리적 욕구지향', '유희지향', '물질지향', '편의지향', '성취지향', '허영지향', '관계지향', '학습회피', '처벌회피', '관계회피', '책임회피'의 11개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초등학생이 기억하는 부정직 행위의 유형은 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의 '유희지향', '물질지향', '편의지향'의 유형이 많았으며, 중학생에게는 '편의지향', 고등학생에게는 '유희지향', '편의지향', '처벌회피', '성취지향', '학습회피'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각 집단에 따른 부정직 행위의 유형별로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물질지향'과 같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부정직 행위 유형은 줄어드는 특성을 보였다. 부정직 행위의 대상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에서 친구, 교사, 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부모를 대상으로, 중학생은 이웃·사회를 대상으로, 고등학생은 다시 부모와 교사 대상의 부정직 행위 빈도가 높아져 이들이 처한 입지준비의 맥락적 특수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성차 비교에서 남학생은 '물질지향', '유희지향', '성취지향'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얻기 위한 유형이 많이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관계지향', '허영지향', '처벌회피'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피하는 소극적 유형의 부정직 행위를 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부정직 행위의 대상이나 유형은 적극적인 유형에서 소극적 유형으로, 구체적 욕구에서 사회적 욕구를 위한 것으로, 가족에서 가족 이외의 대상으로 발달적 변화를 보이나, 성별, 발달 시기, 학교급 집단에 따른 맥락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성도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부정직 행위 유형은 사회화의 범위 및 수준과 관련성을 갖고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요어 : 정직, 부정직, 부정직 행위 유형, 한국 청소년, 지향, 회피,

1)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E-mail : sun0605@snu.ac.kr)

3)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I. 서론

사회의 투명성과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2009년 국제투명성기구의 180개국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5점으로 평정되었다. OECD 국가 평균이 7.04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정도는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소년 반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청소년들 중 45.8%만이 '정직'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을 보여, 청소년의 '정직'에 대한 인식 수준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보도된 바 있다(2008, 한국 투명성기구 조사).

이렇게 우리사회의 정직·부정직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직 및 부정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부정직 행위와 관련된 연구로는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관한 연구(우남희, 이은정, 2004; 정연옥, 한세영, 2009 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 부정행위(한국선, 우남희, 2005; 오영희, 2003 외)와 거짓말에 대한 연구(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는 연구대상 및 거짓말이나 거짓행위의 범주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한 측면만을 살펴본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도덕성의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별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기 부족할 뿐 아니라, 거짓말을 제외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묵과, 묵인과 같은 정직하지 못한 다양한 행위들을 간과하여 부정직 행위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부정직한 행위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 위해 먼저 정직(Honesty)의 사전적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정직이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표준국어대사전, 1999)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가 정직성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함의들을 보여줄 수 없다.

'정직'이란 말을 최초로 언급한 서경(書經)과 시경(詩經)에서는 '이치에 어긋남이 없고, 왜곡됨이 없으며, 임금의 도리는 곧을 것이다.'라 하여 임금이 갖추어야 할 첫째 덕목으로서 정직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맹자의 인의도덕론(仁義道德論)에서는 Piaget와 Kolberg와 같이 정직성의 기초가 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포함하여 가엽게 여기는 마음,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의 세 가지 마음으로 보았다. 이렇게 '정직'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드러내는 양심(良心)은 '생각지 않아도 아는 능력(良知)과 배우지 않아도 가능한 것(良能)'으로 다루었다. 또한 이러한 개념정의에 덧붙여 '정직'을 상황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송명자, 1995).

한편, '부정직'의 개념정의는 '속인다'는 의도가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상관없이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과,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여서 해를 주는 것에 한정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기도 한다(Bok, 1978). Ekman(1985)은 다른 사람이 잘못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행동을 '거짓 행동'으로 보았다. 반면, '부정직'은 상호관계적인 본질을 강조하며, 거짓 진술과 행위를 당하는 상대방의 인식에 근거한

다(Benjamin, 1982; Knapp & Comadena, 1979)는 견해도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사전적 의미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정직’ 행위의 개념을 규정해보면, 행위자가 이치에 어긋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로 행동하는 모든 행위로 제한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직(Honesty)은 부정직(Dishonesty), 거짓행동(Deceiving behavior)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접근법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Hartshorne & May, 1928; Piaget, 1932) 심리학 분야에서 중요 연구로 정직(Honesty)을, 임상 심리학에서는 문제행동으로 부정직 행위를 주로 다루어 왔고(Stouthamer-Loeber, 1986), 사회심리학의 경우 거짓말과 인성, 상황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왔다(DePaulo et al., 1996; Kashy and DePaulo, 1996; Jensen et al., 2004).

특히, Piaget의 연구 이전에는 아동의 거짓말이나 거짓행동을 주로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다뤄왔다. Piaget는 인지 발달적 측면에서도 도덕적 이해와 판단에 기반을 두고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1980년대 초 발달 심리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Bussy, 1992; Peterson, 1995; Peterson, C. C., Peterson, J., L., & Seeto, D., 1983; Stricharts & Burton, 1990) Piaget(1932/1965)는 거짓에 대한 정의와 평가에 대해 연령별 차이를 연구하였고, 그는 거짓행동을 의도를 중심으로 10세에서 11세는 의도적인 거짓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파악하는 도덕적 주관이 판단하는 시기로 의도와 함께 거짓행동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이 10세가 되어야 의도를 고려한다는 의견에 반대를 제기하면서 Peterson (1983)의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이타적인

거짓행동이나 농담과 같은 거짓행동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로 아동의 의도성에 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는 함의를 주었다.

한편, 부정직 행동의 유형을 구분한 선행연구로는 Morgan(1937)이 아동의 거짓 행동에 대한 행동유형을 유회적인 거짓행동, 혼란으로 인한 거짓행동, 허영적인 거짓행동, 악의나 보복의 거짓행동, 변명을 위한 거짓행동, 이기적인 거짓행동, 충실함에서 나온 거짓행동이나 상투적인 거짓행동의 7가지로 분류한 것이 있다. 덧붙여 Peterson(1995)은 행위 유형을 도덕적 강도에 따라 이타적 거짓행동, 농담과 같은 거짓행동,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행동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행위의 의도에 의해 부정직 행위를 분류한 연구로, Ekman(1985)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실험을 통해 타인에게 이익이나 도움이 되는 행동,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도 괜찮은 행동, 이기적인 행동, 타인에게 해를 주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등으로 거짓행동의 유형을 이익과 해 차원에서 분류하였다. 의도와 행위의 주체에 따른 분류는 Peterson & Seeto(1983)의 연구에서도 발견되는데, 그는 자기방어적인 의도로 중립의 결과를 가져오는 의도적 거짓말, 처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거짓말과 자기보호를 위한 의도적 거짓말의 3가지로 구분하거나 욕구에 따른 타인의 욕구를 고려한 선의의 거짓말과 이타주의를 위한 거짓행위의 2가지로 분류한 바가 있다. 또한, Lee와 동료들도(1997) 거짓행동을 의도에 따라 친사회적 거짓행동과 반사회적 거짓행동으로 구

분하였다.

아동이 거짓말하는 동기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본 DePaulo & Jordan(1982)은 초기의 아동은 벌칙을 피하기 위해 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보상을 위해 계획된 거짓말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Schdler & Ayers-Nachamkin(1983)은 아동이 변명하는 것을 아이의 자아 존중감(self-esteem) 보호로 보았다. 그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득이나 이익, 혼돈, 그리고 재미나 놀이 등으로 밝힌 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Mikulay and Goffin (1998)은 정직(Honesty)을 측정하는 도구의 구성요소로 컨닝하기(Cheating), 기만하기(Deceiving), 훔치기(Stealing), 반사회적 행동하기(Counterproductive Behaviour), 속이기(Debriefing) 5가지 행동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한국인의 도덕적 발달에 대한 연구는 도덕 판단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문용린, 1986 외 다수)이고,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거짓말에 관해, 이들 간에 도덕 발달 단계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김경희, 1999)가 있다.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파악하기 위한 거짓말과 거짓행위를 포괄하는 부정직 행위의 전체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는 거의 살펴보기가 어려웠으며, 국외에서 거짓말 유형을 나눈 선행연구의 틀을 그대로 사용한 연구가 대다수이다(우남희, 이은정, 2004).

더불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정직과 관련된 변인과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로는 아동을 둘러싼 부모의 관련성이 거짓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 한 연구(강봉희, 1999)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르기까지 사회적 거짓말의 발달을 살핀 연구(김경희, 1999),

거짓말에 국한하여 그 유형과 정당화 방식을 살핀 연구(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Morgan(1937)의 부정직 행위 유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거나(우남희, 이은정, 2004) 개인, 사회, 도덕 영역으로 구분한 Perkins와 Turiel(2007)의 틀을 사용하여 분석하려고 시도(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체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더불어 한국 청소년의 구체적인 경험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직 행위 유형과 대상 및 원인에 대한 발달경향을 보고하는 연구는 드물다.

남녀의 성차에 따른 부정직 행위에 대한 선행연구로 Grindler(1964)가 연령과 유혹에 대한 저항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연구에서 남아들은 규칙준수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규칙준수의 경향이 많아졌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선인(1992)은 초등학교 남아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차가 증가하여 여아보다 더 부정직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또한, 양돈규, 성옥련(1994)도 초등학교 2학년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6학년에서 남아들이 여아보다 부정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김경희(1999)는 사회적 거짓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부정직 행위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게 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일상

적 부정직 행위의 대상과 원인 및 유형을 밝히려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부정직 행위의 발달적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를 통해 정직을 우리사회에 필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함의 도출하고자 하였다. 부정직 행위의 유형 및 한국 청소년의 발달을 고려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초·중·고등학교 집단별 부정직 행위에 관한 구체적 경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청소년의 부정직 행위를 유형화한 틀을 개발하여 발달경향성을 파악해 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청소년의 정직·부정직 개념 인식과 실제 행위의 차이를 파악하고, 부정직 행위의 발달경향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정직 교육에 함의를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 집단별 부정직 행위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한국 청소년들의 부정직 행위 유형은 집단별로 행위 대상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한국 청소년들이 부정직 행위 유형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청소년의 부정직 행위의 경험을 묻는 질문

의 이해도 및 응답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 9월 부정직 경험 사례를 기술하는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0년 2월 한국 청소년 총 224명을 대상으로 부정직 행위 경험을 기술하는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하지만(이용교, 200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직’에 대한 지각과 행위가 자율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2년 간격의 학생들을 표집 대상으로 정하였다. 본 검사는 2010년 2월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을 위해, 접근성 및 남녀 비율, 학교 일정 등을 감안하여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남, 여학생의 비율이 비슷한 초·중·고등학교 각 1학교씩을 표집대상으로 정하여 실시되었다.

참여자는 초등학생 5학년 79명(35.27%), 중학생 1학년 79명(35.27%), 고등학생 1학년 66명(29.46%)으로 구성되었다. 결과를 분석할 때, 질문 자료의 내용이 연구자가 정의내린 ‘부정직 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의미가 통하지 않는 응답지를 제외하고, 초등학생 5학년 48명(26.5%), 중학생 1학년 70명(36.67%), 고등학생 1학년 63명(34.8%)의 총 1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도구

한국 청소년들의 부정직 행위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이

사용되었다. 질문지의 구성은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포함하는 “지난 1년 동안 부정직한 경험을 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골라 질문에 자신의 부정직 경험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배포된 질문지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어떻게, 결과 등의 6하 원칙에 따라 제시된 활동지를 만들어 수업시간에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하였다. 질문지에는 이름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작성하도록 하였고, 참여자의 자율적인 참여의사를 존중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질문지는 연구진이 선행연구를 통해 부정직 행위 유형으로 유형화한 코딩체계에 따라 부정직 행위의 대상과 행위의 유형을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딩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은 Weston et al.(2001)이 소개한 변증법적 과정과 유사하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부정직 행위 유형 범주(Morgan, 1937; Mikulay & Goffin, 1998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제작한 코딩체계를 수집된 자료에 적용해보고, 초기의 코딩체계가 수집된 자료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도록 수정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처음에 적용한 코딩체계를 점점 정교화 시켰다. 연구자들은 수집된 설문자료를 연구자에 의해 자료에서 드러나는 부정직 행위의 유형을 동기와 원인을 토대로 유형화하여 코딩하였다.

부정직 행위 유형에 대한 코딩 체계는, 설문자료에 나타난 행위들을 두 사람의 평정자

가 동일한 자료를 코딩한 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초기코드가 필요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평정자간의 토론을 통해 코드를 서로 통합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코드의 표현을 고쳤다. 설문지 자료에 나와 있는 부정직행위의 유형을 행위의 동기와 원인을 토대로 유목화하여 최종적으로 2개의 상위 범주, 4개의 하위 범주별 11개의 부정직 행위 유형으로 최종 코딩체계를 개발하였다(표 1).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부정직 행위 유형은 크게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지향’과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회피’의 2가지 범주와 상위 범주별 구체적인 수준과 사회적 수준(Lamborn, Fischer & Pipp, 1994; 김정희, 1999 선행연구 참고)의 2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정직 행위의 주체를 “나”로 한정하였다. 먼저, 부정직 행위의 동기와 이유를 고려하여 개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향’과 해야 할 의무나 일을 하지 않고 피함으로 소극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회피’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지향’의 범주는 다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물건, 신체, 자신의 편의를 위한 ‘구체적 욕구-지향’과 타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욕구-지향’으로 구분하였다. ‘회피’의 범주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정직한 사실을 묵과하거나 행위의 결과로 인한 피해/손해를 입지 않기 위한 것이다. ‘회피’의 범주는 다시 자신이 해야 할 가시적인 과제를 하지 않거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묵과하

표 1. 한국 청소년의 부정직 행위 유형 코딩 체계

범주	행위 유형	부정직 행위 이유에 따른 행위 사례		대상
지향 (+)	생리욕구 지향	- 배가 고파서 음식 줄 새치기	- 잠자고 싶어서 자기	교사
	구체적 유희 지향	- 친구와 놀기 위해 거짓말하기 - pc방 가기 위해 거짓말하기 - 장난으로, 재미로 속이기	- 미성년자 영화를 보고 싶어서 거짓말하기 -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거짓말하기	교사 부모 친구
	욕구 지향	- 돈을 가지고 싶어서 훔치기 - 떨어진 돈 줍기	-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기 - 돈이 아까워서 버스비 안 내고 타기	부모 사회
	편의 지향	- 귀찮아서 규칙위반하기 - 가기 싫고 쉬고 싶어서 아프다고 말하기	- 빨리 가고 싶어서 무단횡단하기 - 돌아가기 싫어서 무단횡단하기	이웃 사회 교사
	사회적 성취 지향	- 성적을 잘 맞으려고 커닝하기	- 영어단어를 많이 맞추기 위해 사전보기	교사 부모
	허영 지향	- 나를 잘 보이기 위해 거짓말하기 - 내 성적 높여 말하기	- 물건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기	친구
	욕구 지향	- 친구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예쁘다고 말하기	- 쌍꺼풀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하기 - 엄마가 기분이 나쁠까봐 성적 속여 말하기	친구 부모
	구체적 학습 회피	- 숙제하기 싫어서 도망가기 - 학원가기 싫어서 친구와 놀기	- 영어 단어 외우기 싫어서 답지를 보기 - 학교 가기 싫어서 아프다고 하기	부모 교사
	회피 의무 처벌 회피	- 친구의 숙제 보고 하기 - 자물쇠 없어졌는데, 모른 체 하기 - 언니목걸이 고장 내고 시치미 떼기	- 동생에게 잘못을 미루기 - 성적조작하기	교사 부모
	(-) 사회적 회피	- 친구가 싫증나서 거짓말하기 - 언니에게 빌려주기 싫어서 없는 체 하기	- 친구를 따돌리려고 거짓말하기	친구
	의무 책임 회피	- 반주자 역할을 하기 싫어서 놀러 가기	- 약속 시간을 지키기 싫어서 거짓말하기	친구 교사 부모

고 피하려는 ‘구체적 의무-회피’와 사회적 관계 속의 지위 또는 역할을 하지 않거나 대인 관계 유지를 회피하려는 ‘사회적 의무-회피’로 분류되었다.

위와 같은 코딩의 범주에 따라 좀 더 세부적인 행위유형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향’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행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이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유형의 이익을 얻고자하는 ‘구체적 욕구-지향’과 타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사회적 유형의 이익을 얻고자하는 ‘사회적 욕구-지향’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 욕구-지향’ 범주는 아래와 같이 4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타났다. 의식, 주와 관련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익 추구는 ‘생리욕구지향’, 흥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유희지향’, 돈, 음식, 눈에 보이는 물건 등을 가지고 싶어 하는 ‘물질지향’, 불편함에서 벗어나 편리하기 위한 ‘편의지향’으로 분류되었다. ‘사회적 욕구-지향’ 범주는 다음과 같이 3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타났다.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적이거나 일에서의 높은 성취를 내기 위한 ‘성취지향’, 나를 남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가식적으로 부풀리고 싶은 ‘허영 지향’, 친구나 남들의 기분을 좋게 하여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관계지향’으로 분류되었다. ‘지향’의 범주는 이렇게 2가지 ‘구체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의 범주 아래 전체 7가지 ‘지향’형 부정직 행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회피’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행위의 결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부

정직 행위로 간접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얻는 유형을 의미한다. ‘구체적 의무-회피’와 ‘사회적 의무-회피’의 2개의 하위 구분에 따른 4가지 ‘회피’형 부정직 행위유형을 분류하였다. ‘구체적 의무-회피’ 범주는 “숙제나 학원가기” 등과 같이 학습 관련된 것을 하기 싫어하는 ‘학습회피’, “동생에게 잘못을 미루기, 숙제 베낌, 모른 채 하기” 등과 같이 후일에 벌이 두려워 피했던 ‘처벌회피’와 같은 개인적 생활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구체적인 과제나 벌을 회피하는 3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사회적 의무-회피’ 범주는 친구나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친구를 따돌리기 위한” 말이나 행위를 하는 ‘관계회피’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책임회피’ 유형으로 사회적 관계나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무를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4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직 행위의 정의에 어긋나고, 행위의 이유 및 목적이 불명확하게 기술되어 표 1의 코딩체계의 어느 유형에도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은 본 결과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남을 때리는 행위”와 “욕하기, 상처 주는 말하기” 등과 글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해석이 불가능한 행위들이 이에 해당된다.

설문 자료를 통해 행위의 동기와 이유에 의한 4개의 범주 11개의 부정직 행위 유형에 따라 대상, 구체적 행위 사례를 코딩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코드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행위의 대상은 부정직 행위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모, 형제자매, 친구, 교사, 이웃·사회 점

점 확장되는 6개의 대상 군으로 구별하였다.

부정직 행위 유형으로 분류한 코딩체계가 연구자의 관점에서 왜곡되어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의 관점을 검증하는 단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는 과정으로 교육심리 박사과정, 석사과정 연구원으로 구성된 2인의 평정자가 전체 질문지 자료를 대상으로 코딩 체계를 활용하여 상호 평정한 후, 상호 일치도를 비교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거짓말의 정당화 방식에 대해 Cohen의 κ 로 계산한 두 평정자간의 일치도는 .915였다. 이것을 교육심리 석사과정 5명과 박사과정 4명과 박사 1명으로 구성된 교육심리 전문가의 전문가 집단 검토(peer debriefing)를 거쳤다. 전문가 검토에서 부정직 행위 유형의 범주 구성에 대한 중복, 추가, 통합, 수정의 논의 과정을 통해 안면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전체 설문지에 대한 코딩이 끝난 후, 연구 문제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생성된 유목자료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카이 스퀘

어(χ^2)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코딩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학교 급 집단별 부정직 행위의 유형별로 유목화하고, 대상과, 남녀 성별 차이에 대해 추가적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한국 청소년의 집단 간 부정직 행위 유형 분석

부정직 행위 경험의 사례를 바탕으로 행위 유형과 원인에 따라 연구자들이 재구성한 코딩체계에 의한 학교급 집단 간 부정직 행위의 범주별 행위 유형의 빈도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부정직 행위유형이 지향-회피의 4가지 범주별로 집단 간 빈도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카이 스퀘어 검정(χ^2)을 실시하였다. 카이 스퀘어 검정(χ^2)값이 $\chi^2(6)=13.327$ ($p=.038<.05$)이므로 부정직

표 2. 학교급 집단 간 부정직 행위 지향-회피 범주에 따른 학생의 빈도 분포(명/%)

	지향(+)		회피(-)		전체
	구체적 욕구	사회적 욕구	구체적 의무	사회적 의무	
초등학교	25	8	10	5	48
명(%)	(13%)	(4.4%)	(5.5%)	(2.8%)	(26.5%)
중학교	53	6	10	1	70
명(%)	(29.3%)	(3.3%)	(5.5%)	(.6%)	(38.7%)
고등학교	31	12	15	5	63
명(%)	(17.1%)	(6.6%)	(8.3%)	(2.8%)	(34.8%)
전체	109	26	35	11	181
명(%)	(60.2%)	(14.4%)	(19.3%)	(6.1%)	(100%)

행위 유형의 4가지 범주별 집단 간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에 의하면 표집된 한국 청소년들의 전체 181명 중에서 ‘지향’(135명/74.6%), ‘회피’(46명/25.4%)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 욕구-지향’(109명/60.2%)이 ‘사회적 욕구-지향’(26명/14.4%)보다 많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회피’ 범주에서도 ‘구체적 의무-회피’(35명/19.3%)가 ‘사회적 의무-회피’(11명/5.1%)로 더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즉, 한국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얻기 위해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향’하는 것이 ‘회피’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욕구 추구나 ‘구체적인’ 의무 회피를 위한 유형이 ‘사회적인’ 욕구 추구하고 ‘사회적인’ 의무 회피를 위한 것 보다 많이 나타났다.

학교급 집단 간 하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는 학교급 집단 간 부정직 행위 유형별 학생의 빈도(명/%)를 보여준다.

표 3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개인의 편의를 추구하는 ‘편의지향’(40/22.1%)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개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즐거움(놀이 위해서, 영화보고 싶어서,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과 개인 흥미와 선호를 위한 것으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유희지향’(33명/18.2%), 돈이나 물건과 같은 구체적인 물질을 가지고 싶어 하는 ‘물질지향’(29명/16.0%),이 높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구체적인 개인의 ‘구체적 욕구’를 충족시켜 개인의 이익을 얻는 ‘구체적 욕구-지향’형의 부정직 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차별회피’(19명/10.5%), ‘학습회피’(16명/8.8%)순으로 개인적인 의무를 피하기 위해 피하는 ‘구체적 의무-회피’ 형의 부정직 행위를 하였고, ‘성취지향’(10명/5.5%), ‘관계지향’(10명/5.5%)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적 욕구 지향’형의 부정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 부정직 행위는 ‘책임회피’(5명/2.76%)유형으로 “자기가 맡은 역할이나 의무에 대해서 하기 싫은”이유와 ‘사회적 의무-회피’의 부정직 행위 유형의 빈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관계회피’(6명/3.3%), ‘허영지향’(6명/3.3%)도 비교적 낮은 분포로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타인의 정서를 공감해야 하는 ‘관계지향’(10명/5.5%)은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학교에 높은 빈도를 보였다.

우선, 초등학생들이 행하는 부정직 행위를 구체적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희지향’(14명/29.2%)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행위의 구체적 이유는 “친구와 놀기 위해서, pc방 가기 위해서, 장난으로, 재미삼아” 부정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물질지향’(9명/18.8%)과 ‘학습회피’(6명/12.5%)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 주었다. 초등학생들은 “구체적”인 유형의 이익을 취하거나 의무를 피하기 위한 부정직 행위를 더 많이 인식하며 행위하고 있었다. 이것은 구체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행위하거나, 가지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관계지향’(1명/2.1%)유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온 것은 초등학생이 아직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보편적인

규칙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추구의 일환으로 부정직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는 ‘빨리 학교가기 위해, 돌아가기 귀찮아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시치미 댄다거나 등’ 개인적 편의를 추구를 위해 나타나는 ‘편의지향’(26명/

37.1%)유형이 다른 집단 보다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학교에서 ‘편의지향’의 부정직 행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중학생이라는 과도기적 단계로 발달적 측면에서 사회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칙이나 규칙, 법, 질서의 권위나 압력에 대해 반항하고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시작하는 시기임을

표 3. 학교급 집단 간 부정직 행위 유형에 따른 학생의 빈도 분포 (명/%)

행위유형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생리욕구지향	0 (0%)	3 (4.3%)	4 (6.3%)	7 (3.9%)
유흥지향	14 (29.2%)	9 (12.9%)	10 (15.9%)	33 (18.2%)
물질지향	9 (18.8%)	14 (20.0%)	6 (9.5%)	29 (16.0%)
편의지향	3 (6.3%)	26 (37.1%)	11 (17.5%)	40 (22.1%)
성취지향	3 (6.3%)	1 (1.4%)	6 (9.5%)	10 (5.5%)
허영지향	4 (8.3%)	0 (0.0)	2 (3.2%)	6 (3.3%)
관계지향	1 (2.1%)	5 (7.1%)	4 (5.3%)	10 (5.5%)
학습회피	6 (12.5%)	4 (5.7%)	6 (9.5%)	16 (8.8%)
처벌회피	3 (6.3%)	7 (10.0%)	9 (14.3%)	19 (10.5%)
관계회피	3 (6.3%)	1 (1.4%)	2 (3.2%)	6 (3.3%)
책임회피	2 (4.2%)	0 (0.0%)	3 (4.8%)	5 (2.8%)
전체	48 (100%)	70 (100%)	63 (100%)	181 (100%)

감안(이용교, 2002)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정직 행위, 예컨대 ‘예쁘지 않은 친구나 친구의 물건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 ‘관계지향’(5명/7.1%) 유형의 ‘사회적’인 부정직 행위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부정직 행위 유형의 빈도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에게 높은 빈도를 보인 유형은 ‘편의지향’(11명/17.5%)으로 앞서 중학생과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학생보다 줄어든 빈도분포를 보이는데, 고등학생은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Erickson, 1968)로 흥미와 선호가 드러난 내재적 자율 행위의 지향의 결과, 교사나 교칙, 규칙, 질서에 대한 권위를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역할로 받아들이는 내면화로 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유흥지향’(10명/15.9명)과 ‘처벌회피’(9명/14.3%)는 중학생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한편, 연령이 올라갈수록 ‘성취지향’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공부나 일에서 높은 성적이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학업스트레스가 성취지향 욕구를 만들어 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반면, 중학생 시절에 잠시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형은 ‘물질지향’, ‘편의지향’, ‘허영지향’, ‘관계지향’이 있다. 고등학생은 물질이나 자신의 편의와 같은 구체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에 의한 ‘구체적 욕구’의 부정직 행위는 다소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에게 나를 잘 보이게 하려는 ‘허영지향’과 ‘관계지향’이 줄어든 것과 ‘유흥지향’, ‘처벌회피’가

소폭 늘어난 것은 중학생에 비해 한국 고등학생들은 또래나 타인과의 관계유지보다는 개인 내적인 욕구로 회귀하고, 사회적 성취 등과 관련된 부정직 행위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학교급 집단 간 부정직 행위 대상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 분석

학교급 집단 간 부정직 행위 대상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학교급 집단 간 부정직 행위의 대상에 따라 부정직 행위유형은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가족(부모/형제자매)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이 줄어들고 대체로 가족 외(친구, 교사, 이웃/사회)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chi^2(2)=14.422$, $p=.001<.05$).

초등학생의 경우 대체로 부모를 대상으로 “pc 방 몰래 가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공부하기 싫어서”와 같은 ‘유흥지향’의 부정직 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이외의 경우 주로 학교 및 학원 선생님을 대상으로 ‘숙제 하지 않기’ 등의 일상적인 부정직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흥지향’ 보다 가족 외 이웃/사회를 대상으로 ‘편의지향’ 부정직 행위의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중학생은 초등학생과 달리 생활범위가 넓어지면서 교칙과 규칙, 및 법과 질서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친구나 이웃/사회,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정직 행위가 많았다. 특히

부모(16명/25.4%)를 대상으로 한 부정직 행위는 중학교 때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등학생의 관심이 ‘입시’로 집중됨에 따라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축소된 고등학생의 환경과 부모,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 부모의 보호와 감시를 벗어나 고등학생은 자율적인 선호에 따라 행위하고 싶어 하는 부정직 행위가 늘어난 한국 고등학생의 특수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발생된 결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대상에 따른 부정직 행위유형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직 행위 유형은 자신의 흥미나 즐거움을 위한 ‘유희지향’(14명/7.7%)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직 행위유형은 “동생의 저금통의 돈을 가지고 간다”는 등의 ‘물질지향’(6명/3.3%)이 가장 많이 나타나서 가족관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부정직 행위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를 대상으로 한 부정직 행위유형으로는 개인적인 관심이나 흥미로 인한 ‘유희지향’(5명/2.8%)과 ‘관계지향’(2.8%)순으로 많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정직 행위 유형으로는 “공부나 시험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보이기 위해 친구의 시험지를 빼끼거나 답지를 보고 커닝하는” 등의 ‘성취지향’(8명/4.4%)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영화를 보러가거나, 친구와 놀기 위해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도망가기” 등의 ‘유희지향’(7명/3.9%), ‘처벌회피

표 5. 부정직 행위 대상에 따른 부정직 행위 유형 빈도수

(명/%)

집단	대상 구분					전체
	가족		가족 외			
	부모	형제자매	친구	교사	이웃/사회	
생리욕구지향	0(0%)	0(0%)	1(5.5%)	0(0%)	6(3.3%)	7(3.9%)
유희지향	14(7.7%)	2(1.1%)	6(3.3%)	7(3.9%)	4(2.2%)	33(18.2%)
물질지향	7(3.9%)	6(3.3%)	4(2.2%)	1(6%)	11(6.1%)	29(16.0%)
편의지향	1(6%)	1(6%)	1(6%)	5(2.8%)	32(17.7%)	40(22.1%)
성취지향	1(6%)	0(0%)	1(6%)	8(4.4%)	0(0%)	10(5.5%)
허영지향	3(1.7%)	0(0%)	2(1.1%)	1(6%)	0(0%)	6(3.3%)
관계지향	2(1.1%)	1(6%)	5(2.8%)	1(6%)	1(6%)	10(5.5%)
학습회피	10(5.5%)	1(6%)	0(0%)	5(2.8%)	0(0%)	16(8.8%)
처벌회피	10(5.5%)	2(1.1%)	1(6%)	6(3.3%)	0(0%)	19(10.5%)
관계회피	0(0%)	1(6%)	4(2.2%)	1(6%)	0(0%)	6(3.3%)
책임회피	2(1.1%)	0(0%)	1(6%)	2(1.1%)	0(0%)	5(2.8%)
전체	50(27.6%)	14(7.7%)	26(14.4%)	37(20.4%)	54(29.8%)	181(100%)

(6명/3.3%)와 ‘편의지향’(5명/2.8%) 순의 빈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회를 대상으로 한 부정적 행위유형에서 가장 높은 빈도(54명/29.8%)를 보이는 데, 구체적인 사례로 “기다리기 귀찮아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빨리 가기 위해서 학교 규칙을 어기기” 등의 ‘편의지향’(32명/17.68%)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길가의 떨어진 돈을 줍거나, 이웃 가게의 물건을 훔치기” 등의 “물질지향”(11명/6.08%)의 부정적 행위가 많이 나타났다.

3. 학교급 집단 간 성별에 따른 부정적 행위 유형 분석

학교급 집단별 성별에 따른 부정적 행위 유형의 빈도 분포는 표 6과 같다. 표 6을 살펴보면 성별과 상관없이 남녀학생 모두 전체적

으로 ‘편의지향’과 ‘유희지향’의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특별히 남학생이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는 부정적 유형은 ‘성취지향’(7명/3명), ‘물질지향’(19명/10명)이고, 여학생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은 ‘관계지향’(2명/8명), ‘학습회피’(6명/10명)유형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반면, 여학생은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계지향’ 또는 학습을 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학습회피’의 수동적인 유형의 부정적 행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유희지향’(9명/5명) ‘물질지향’(6명/3명), ‘성취지향’(3명/0명), ‘허영지향’(3명/1명)이 2배정

표 6. 학교급 집단 간 성별에 따른 부정적 행위 유형 빈도 (명/%)

행위유형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
생리욕구지향	0	0	3	0	0	4	3(42.9%)	4(57.1%)	7(3.87%)
유희지향	9	5	5	4	5	5	19(57.6%)	14(42.4%)	33(18.2%)
물질지향	6	3	9	5	4	2	19(65.5%)	10(34.5%)	29(16.0%)
편의지향	2	1	10	16	8	3	20(50%)	20(50%)	40(22.1%)
성취지향	3	0	0	1	4	2	7(70%)	3(30%)	10(5.53%)
허영지향	3	1	0	0	0	2	3(50%)	3(50%)	6(3.32%)
관계지향	0	1	2	3	0	4	2(20%)	8(80%)	10(5.5%)
학습회피	2	4	2	2	2	4	6(37.5%)	10(62.5%)	16(8.84%)
처벌회피	2	1	6	1	3	6	11(57.9%)	8(42.1%)	19(10.5%)
관계회피	2	1	0	1	1	1	3(50%)	3(50%)	6(3.32%)
책임회피	1	1	0	0	2	1	3(60%)	2(40%)	5(2.76%)
전체	30	18	37	33	30	33	97(53.6%)	84(46.4%)	181(100%)

도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반면, 초등학교 여학생이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학습회피’(2명/4명), ‘관계지향’(0명/1명)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높이 나타났던 유형들이 비교적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남녀별 차이가 나는 유형(남/여 빈도 수)은 ‘생리욕구지향’(3명/0명), ‘물질지향’(9명/5명)유형의 ‘구체적 욕구-지향형으로 남학생이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사회적 욕구-지향’인 ‘관계지향’(2명/3명)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생은 성차 없이 고루 분포를 보이고 있어 또래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처벌회피’가 다른 집단에 비해 중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빈도를 보인다는 것은 소극적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부정직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과 반대로 ‘생리욕구지향’(0명/4명)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학생의 신체적 급격한 발육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대인관계를 잘 유지 하고자 하는 ‘관계지향’(0명/4명)과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허영지향’(0명/2명)의 사회적 상황의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욕구-지향’의 친사회적 부정직 행위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남학생은 여전히 ‘물질지향’(4명/2명), ‘성취지향’(4명/2명)과 같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추구를 하고 있었고, 여학생은 ‘학습회피’, ‘처벌회피’와 관련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의무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를 위한 부정직 행위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직 행위 유형과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발달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발달 경향을 통해 한국 청소년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청소년의 ‘정직(honesty)’과 ‘부정직(dishonesty)’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정직 혹은 부정직 행위의 하위 유형의 틀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부정직 행위 경험 빈도 및 평가에 대한 인식변화의 발달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범위를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학교급 집단 간 발달 경향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급을 대표하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직한 경험에 대한 개방형 서술 자료(Open-ended)를 통해 학교급 집단 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정직 행위의 내용과 행위의 대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한국청소년의 정직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이 낮아 이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한국 청소년들의 부정직 행위에 대한 유형에 대해 경험적으로 탐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거짓말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왔으나,(김경희, 1999; 우남희, 이은정, 2004;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 청소년 전반에 걸친 부정직의 말과 행위를 아우

르는 부정직 행위의 유형을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분류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발달 경향성을 분석한 시도는 없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소년들은 학교급 집단 간 부정직 행위유형의 범주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chi^2(6)=13.327, p=.038<.05$), 행위유형별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개인의 편의를 추구하는 ‘편의지향’(40/22.1%)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유희지향’(33명/18.2%), ‘물질지향’(29명/16.02%)이 높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위한 ‘구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구체적 욕구-지향’형 부정직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받아야 할 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이익 추구인 ‘처벌회피’(19명/10.5%), ‘학습회피’(16명/8.84%)와 같은 ‘구체적 의무-회피’형의 부정직 행위를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빈도 분포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보다 개인 영역에서 ‘구체적’ 수준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거나 ‘구체적’인 과제나 의무를 ‘회피’하는 부정직 행위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급 집단 간 빈도 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물질지향’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는 다소 줄어들고 있었으나(우남희, 2004), ‘성취지향’(10명/5.53%), ‘관계지향’(10명/5.5%)과 ‘허영지향’(6명/3.3%)의 ‘사회적 욕구-지향’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친사회적 행동 유형의 부정직 행위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청소년은 친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거짓행동 모두를 경험한다는 Lewis(1997)의 주장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물질지향’, ‘유희지향’과 같은 ‘구체적 욕구-지향’이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다소 줄어들고, ‘관계지향’, ‘관계회피’, ‘허영지향’ ‘사회적 욕구-지향’과 같은 유형이 나타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사회적”인 것으로 발달된다는 결과(Lamborn, Fischer & Pipp, 1994; 김경희, 1999)와 일치하였다. 특히 중, 고등학교에서 ‘관계지향’(5명/3명)이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들의 또래의 사회적 상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달적 경향(이용교, 2002)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논의와 상반된 결과로 집단 간 부정직 행위의 유형이 연령에 상관없이 개인의 흥미와 즐거움을 위한 ‘유희지향’, ‘학습회피’의 부정직 행위 유형은 집단 간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정직 행위를 하는 궁극적인 동기와 이유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발달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계회피’ 유형이 연령에 따른 발달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도 친구와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해결 판단이 정직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연구(Berkowitz & Keller, 1994)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학교급 집단 간 부정직 행위의 대상에 따라 빈도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chi^2(2)=14.422, p=.001<.05$). 초등학생은 부모를 대상으로, 중학생은 이웃/사회를 대상으로 고

등학생은 친구를 대상으로 한 부정직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다른 집단보다 ‘이웃, 사회’를 대상으로 ‘편의추구’형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직 행위의 대상이 대체로 가족(부모/형제)에서 가족 외(친구, 교사, 이웃/사회)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 인간관계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지향’, ‘허영지향’의 ‘사회적 욕구-지향’유형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보다 또래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부정직 행위가 증가했다(Lee et al., 1997,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유흥지향’, ‘처벌회피’ 부정직 행위의 분포가 많이 나타나는 것과 중학교에서 이웃/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편의지향’의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 규범을 유지하는 것보다 개인의 이익과 편리추구에 따른 ‘구체적’ 부정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청소년들이 남녀 빈도 분포에 있어서 발달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 청소년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구체적인 개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취하려는 ‘유흥’, ‘물질’, ‘편의’와 같은 ‘지향’형의 부정직 행위를 하며, 여학생은 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회피’형의 부정직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개인적 이익 추구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남학생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유흥지향’, ‘물질지향’, ‘성취지향’과 같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익을 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구체적 욕구-지향’의

부정직 행위를 많이 나타냈다. 이에 반해 여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관계지향’과 ‘허영지향’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와 상관되는 부정직 행위를 하는 ‘사회적 욕구-지향’의 친사회적 부정직 행위를 하였다 있음을 밝혔다.

다섯째, 연령에 따른 발달적 경향과 상이하게 학교급의 ‘맥락’적 요소에 따라 특수한 부정직 행위 유형이 나타났음을 발견했다. 중학생은 ‘이웃/사회’대상으로 ‘편의지향’의 유형과 고등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취지향’ 및 ‘학습회피’, ‘처벌회피’의 부정직 행위가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중학교 시기가 가정, 학교 위주의 초등학생시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건들을 이웃,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화의 과도기적 단계라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아동기 동안 학습한 정서적 억압을 느슨하게 하는 동시에 융통성 있는 통제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이용교, 2002) 사회적 규범과 학교 규칙에 대해 융통성 있게 조절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성취지향’(6명/9.5%) 빈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학업에 대한 중요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고등학생은 ‘입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성적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증가로 ‘성취 지향’의 부정직 행위가 증가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직 행위는 행위자의 상황 특수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직, 부정직도 사회적 인습의 명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는 Turiel(1983)의 주장을 뒷받침한 결과였다. 이와 더불어 Hoffman의 사회적

인습단계이론은 초, 중, 고등학생의 사회의 인습,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부정직 행위의 양상을 보인다고 한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정직 행위도 행위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정직 행위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쓰는 일종의 개방형의 기억재생에 의해 기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으므로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청소년들은 연령에 따라 부정직 행위에 대한 개념의 인식의 범위가 다르다. 초등학교의 경우 “엄마에게 만화책을 사달라고 함, 늦잠을 자고 게으름 피움, 오빠에게 까불음, 피자를 내가 더 많이 먹음, 때리기, 소리 지르기” 등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위까지를 부정직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중,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발견되는 부정직으로 보기에 어려운 행위를 제거하고 분석하였으므로 총 분석 자료에서 집단 간 크기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정직 행위에 대한 인식과 빈도를 경험적으로 입증한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청소년들의 부정직 행위유형 빈도분포는 그들이 기억하고 재생해낸 사례를 분석하였으므로 실제로 그들이 행한 부정직 행위의 실제 빈도분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개인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직 행위를 분류하

였다. 타인과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직 행위들을 나의 이익의 관점에서 ‘허영지향’, ‘관계지향’과 ‘관계회피’, ‘책임회피’의 ‘사회적’인 ‘지향’과 ‘회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 대상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분류를 가정할 수도 있겠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은 개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직접적인 결과를 얻으려는 ‘구체적 욕구-지향’, ‘사회적 욕구-지향’과 개인의 의무와 역할을 하지 않거나, 해를 입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피하거나 행위하지 않는 ‘구체적 의무-회피’, ‘사회적 의무-회피’의 4가지 범주와 행위의 동기와 이유에 따른 11개의 하위 유형으로 부정직 행위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직 행위 유형도 개인은 자신의 환경과 타인의 관계를 맺는 행위의 대상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속에서 특수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사회적’, ‘지향-회피’의 차원으로 구분한 부정직 행위 유형의 체계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맥락’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 특수적인 입장에서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정직”과 “부정직” 개념에 대한 지각과 평가의 발달 경향성을 살펴보고, 실제 정직, 부정직한 행동의 빈도분포와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식과 실제의 차이를 보여주며, 부정직 행위에 대한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후속연구로 본 연구의 부정직 행위 유형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행위의 대상자(타인)의 이익을 고려한 부정직 행위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봉희 (1999). 초등학교 아동의 거짓말 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1999). 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정직과 친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14-24.
- 김신옥 (1987). 아동의 거짓말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용린, 문미희 (1986)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 진단 연구, 서울대학교 도덕심리연구실
-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7). 한국인의 거짓말 유형과 정당화 양식 연구, 인간발달연구, 191-205.
- 송명자 (1995) 정직성의 본질과 정직성 교육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21(2). 33-46.
- 양돈규, 성옥련 (1994). 긍정적 피드백이 아동의 정직행동 및 그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110-123.
- 오영희 (2003). 고등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의 지각, 경험, 관련 변인 분석 연구, 교육심리연구, 17(2), 5-24.
- 우남희, 이은정 (2004). 초등학교 아동과 부모의 거짓행동 경험 및 태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3), 95-115.
- 이선인 (1992). 갈등 상황에서의 아동의 부정직 행동. 중대 논문집, 35.
- 이용교 외 (2002).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 정연옥, 한세영 (2009). 연령과 이야기 종류에 따른 유아의 거짓말 및 도덕 판단, 인간발달연구 16(3), 1-25.
- 한국선, 우남희 (2005). 한국 아동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10, 174-186
- 국제투명성기구 (2009). OECD 180국 대상 부패인식 조사
- 한국 투명성 기구 조사 (2008). 청소년 반부패 인식지구 조사
- Berkowitz, M. W. & Keller, M (1994). *Transitional Processes in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Longitudinal Study
- Bok, (1978) *Lying: Moral choices in public and private life*, New York: Panthen.
- Boyes, M. C., & Walker, L. J. (1988). Implications of cultural diversity for the universality claims of Kohlberg's theory of moral reasoning. *Human Development*, 31, 44-59.
- Bussey, K(1992). Lying and truthfulness: Childeren's definitions, standards, evaluative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3, 129-137.
- Bussey, K (1999). Childe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70, 1388-1347
- Chandler, M., Fritz, A. S., & Hala, S. (1989). Small-scale deceit: Deception as a marker of two-, three-, and four-year-olds' early theories of mind. *Child Development*, 60, 1263-1277.
- DePaulo, B. M. & Kashy D. A. (1998). Everyday lies in close and casu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3-79.

- Ekman (1985). *Telling lies*.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Inc.
- Engels, R. C. M. E., Finkenauer, C., & van Kooten, D. C. (2006). Lying behavior, family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J Youth Adolescence*, 35, 949-958
- Fu, G., Xu, F., Cameron, C. A., Heyman, G. & Lee, K. (2007).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n's choices, categorizations, and evaluations of truths and 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278-293.
- Grinder, R. E. (1964). Relations between behavioral and cognitive dimensions of conscienc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35, 881-891.
- Hartshorne, H., & May, M. (1928). *Studies in the nature of character (Vol. 1. Studies in deceit)*. New York: MacMillan.
- Jensen, L. A., Arnett, J. J., Feldman, S. S., & Cauffman, E. (2004). The right to do wrong: Lying to parents among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101-112.
- Lamborn, S., Fischer, K. W., & Pipp, (1994) Constructive criticism and social lies; A development sequence and understanding honesty and kindness in social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95-508
- Lee, K. (2000). *Lying as doing deceptive things with words: A speech act theoretical perspective*. In J. W. Astington (Ed.), *Mind in the making* (pp.177-196).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Lee, K., Cameron, C. A., Xu, F., Fu, G., & Board, J. (1997).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s evaluations of lying and truth tell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pro- and antisoci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8, 924-934.
- Morgan, J. J. B. (1937). *The psychology of the unadjusted school child*.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Perkins, S. A. & Turiel, E. (2007). To lie or not to lie: To whom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Child Development*, 78, 609-621.
- Peskin, J. (1992). Ruse and representations: On children's ability to conceal in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8, 84-89.
- Peterson, C. C. (1995). The role of perceived intention to deceive in children's and adults' concepts of ly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 237-260.
- Peterson, C. C., Peterson, J., L., & Seeto, D. (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ideas about lying. *Child Development*, 54, 1529-1535.
- Piaget, J. (1932/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Polak, A., & Harris, P. L. (1999). Deception by young children following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5, 561-568.
- Shweder, R. A., Mahapatra, M., & Miller, J. G. (1987).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J. Kagan, & S. Lamb, (Eds.),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pp.1-8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richarts, A. F. & Burton, R. V. (1990). Lies and truth;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 concept. *Child Development*, 61, 211-220.
- Sweetser, E. E. (1987). *The definition of lie: An examination of the folk models underlying a semantic prototype*. In D. Holland (Ed.),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 (pp.43-6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sak, M. S. & Turiel, E.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prudential rules. *Child Development*, 55, 1030-1039.
- Turiel, E. & Perkins, S. A. (2004). Flexibilities of mind: Conflict and culture. *Human Development*, 47, 158-178.
- Turiel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 차원고접수 : 2010. 04. 02.
수정원고접수 : 2010. 05. 19.
최종게재결정 : 2010. 05. 27.

An analysis of dishonesty behavior patterns of Korean adolescents

Moon, Yong-Lin

Chang, Hee-Sun

Ryu, Jonghyon

Dep.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developmental honesty trend according to both gender and age difference. The patterns of dishonesty behaviors of Korean adolescents(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1st grade middle students and the 1st grade high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Two hundred and twenty two participants completed essays on dishonesty behavior; focusing on the lies that were most prominent in their memories. They were asked to describe their dishonesty behavior experiences, citing the time, situation, targeted person, outcomes, and the reason for the dishonesty. These essays were then analyzed by means of a coding scheme which contained eleven categories consisting of: Play-oriented, Material-oriented, Convenience-oriented, Achievement-oriented, Vanity-oriented, Relationship-oriented, Physiological-oriented, Studying-avoidance, Punishment-avoidance, Relationship-avoidance, and Task-avoida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dishonesty patterns most frequently occurred within close relationships rather than other forms of relationships. The subjects reported that the primary motivation behind their dishonesty behaviors were their personal interest or benefit which we concluded were the most common behavio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shonesty behavior patterns among the different age groups.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shonesty behavior patterns were discernable according to gender. Patterns of dishonesty behavior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developmental period, school grade and the life context and situation of Korean adolescents which may relate to surrounding environmental elements such as peer culture, the degree of socialization and school life amongst others.

Key words : Honesty, Dishonesty Behavior pattern, Korean Adolescent, Oriented, Avoidance